

슬픔의 사람 예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이사야 53:3-4]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우리 누구도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슬픔의 경험이 자주 닥쳐 와서 피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슬픈 경험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슬픔을 느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분노, 그리고 애통함을 모두 느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을 그분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시는 사랑과 동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언자 이사야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거부될 것이며, 슬픔의 사람이 될 것이며 고통을 잘 아는 분”이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가올 여호와의 징벌과,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목이 뻗뻗한 영적 패퇴 상태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감정을 여러번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세주로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신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거부 당하고, 멸시와 오해를 받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천대를 받고,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당하셨으며, 죄 없는 공정하지 못한 군중 심판으로 정죄당하셨고, 범죄자들과 함께 가장 혹심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슬픔은 자신이 당할 육체적 처벌과 고통의 십자가 처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가난한 목수로 30 여년을 부모와 동생들을 섬기신 후에, 집이나 재산도 없이 오직 믿는 자들의 섬김에 의존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3년 반의 복음 사역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께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가서 두번 전도하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누가 4:28-30]. 심지어 그의 동생들도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코치하려 하였습니다 [요한 7:3]. “나는 세상을 먹이는 참된 빵이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간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요한 6:66]. 자신을 지극히 존경하고 믿고 따르던 나사렛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참 교훈을 가르치려는 동안 그분의 사역에 죽음의 혹한 경험을 하게된 나사렛의 죽음에 주님께서서는 울음으로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 11:35]. 회개하지

않고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머지않아서 심판하고 죽일 예루살렘을 쳐다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41-42]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 날 죽 네 날에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마치 범 죄인인 것처럼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잔혹한 체벌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시간을 앞두고 겐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겪어야 할 그 경험, 즉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여 땅속에서 사흘간 죽음을 경험해야 할 그 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세 제자들이 그분의 이 어려운 경험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슬픔과 고통의 잔을 홀로 마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33-36]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34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36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많은 슬픔을 우리를 위하여 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신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슬픔을 경험하십니까? 많은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과 재산의 손실로 인한 슬픔, 가족과 친지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 타인의 오해와 배척으로 인한 사회적 슬픔 등 여러 종류의 슬픔을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슬픔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멸망 상태에 있음을 한탄하는 슬픔, 세상에서 사악한 무리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것을 보는 슬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분투하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는 슬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오해하고 배척하며 심지어 방해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슬픔을 아십니까? 참 신앙인들은 우리 주님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 주님의 손과 발에 아직 남아있는 못자국과 이마의 가시관 흉터를 볼 때에 우리가 경험한 슬픔에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